

◇개교 42주년 기념

기획
르보

하루의 반을 차지하는 동·하교 시간

현재 수원캠퍼스에는 기숙사, 대학촌건설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중 교통문제와 함께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들 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로서 다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풀어야 할 근본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고속도로상황과 교통의 현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해본다. (편집자 주)

수원캠퍼스 교통상황 심각하다

I. 학교까지의 교통 운영 실태

강남노선 기존의 강북노선이 폐기된 현상황에서는 강남에서 출발하는 강남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학생들 60%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교통수단의 확충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2년전만해도 20여분 걸리던 시간이 현시점에서는 50분이상 소요되고 있다.

현재 강남노선에는 18대의 스쿨버스가 운행되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의 정해진 시간만이 무작위로 운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오전 7시 40분 첫차를 시작으로 18대 모두가 계속 강남역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9시부터 30분동안 2교시의 수업시간을 듣기 위해 차를 타러 오는 학생들은 7시 40분부터 출발한 18대의 버스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속도로의 차량증가와 오는 92년도에 완공될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는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늘여주는 결과를 낳는 한편 운전하는 기사들의 업무량을 늘려 불평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강남역에는 각 지방캠퍼스로 향하는 스쿨버스가 있으나 학생들이 줄을 서는 길이는 우리학교가 가장 길다"며 스쿨버스배차간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수원노선 현재 수원노선은 강남의 고속도로가

막힘에 따라 수원전철을 타고 역에 도착하여 수원노선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대의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수원노선은 오전 8시부터 45분간 5대의 버스를 무작위적으로 출발

시키고 있으며 8시 50분부터 9시 15분까지는 회차의 지연등으로 차를 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8시출발 버스가 수원역으로 회차하는데 정비, 왕복시간등으로 1시간 10분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도 남쪽으로는 차가 막혀서 삼성전지나 시청앞의 길을 이용하여 운행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10시 이후부터 30분간격으로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인원이 몰림에 따라 학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수단 현재 학교까지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남부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경일여객중 일부와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수원여객 버스중 일부가 운행되어지고 있다.

또한 수원여객시내버스를 오전에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에 증집 배차할 수 있도록 학교·일자측과 계약이 되었으나 배차시간의 불규칙성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II. 양재-수원간 고속도로 상황

앞에서 밝힌 고속도로구간의 정체는 오는 92년 12월 완공될 예정인 양재-수원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이며 92년 12월 구간 도로공사 완공되더라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와 구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첫째는 학생들의 교통량을 줄이면서 학교주변에 정착시키는 방안이며 두번째는 학생들의 교통수단을 좀더 원활하게 확충하는 방안이다.

우선 학생들의 교통량을 줄이는 방안은 학교 주변의 캠퍼스타운 조성이 그 해결책으로 대두될 수 있다.

소위 수원캠퍼스를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만큼 현재 학교주변

문화공간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측의 학교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타대 지방캠퍼스의 경우 학교 주변에 우선 학교가 건물을 건설하고 그 후 주변 주민들에게 그 건물을 인도하여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해주는 대학 또한 있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증축도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 주변과 신갈, 수원에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기초에는 서로 자취나 하숙을 하려는 학생들로 생활권이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애지원기숙사, 신축될 국선관 기숙사로는 국선관이 제대학생들에게만 배당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상에서 학생들의 교통체증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 줄이는 한 방법을 언급했다. 그러면 두번째 방법인 교통수단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작년 인복위가 수원 시내 버스를 증차시켰으며 남부터미널의 경일여객을 학교까지 유치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첫 발을 내디뎠으나 현재 진행중인 100-

만화공간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측의 학교주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타대 지방캠퍼스의 경우 학교 주변에 우선 학교가 건물을 건설하고 그 후 주변 주민들에게 그 건물을 인도하여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해주는 대학 또한 있는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더욱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증축도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학교 주변과 신갈, 수원에 자취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학기초에는 서로 자취나 하숙을 하려는 학생들로 생활권이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애지원기숙사, 신축될 국선관 기숙사로는 국선관이 제대학생들에게만 배당되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생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상에서 학생들의 교통체증에 의한 불편을 최소화 줄이는 한 방법을 언급했다. 그러면 두번째 방법인 교통수단의 확대에 대해 알아보자.

또한 작년 인복위가 수원 시내 버스를 증차시켰으며 남부터미널의 경일여객을 학교까지 유치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첫 발을 내디뎠으나 현재 진행중인 100-



◇수원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기위해 줄을 선 모습



◇고속도로 포장 토공 건설 현장

캠퍼스 타운 조성·전철 유치에 적극적 노력 시급 고속도로 정체, 이용학생증가로 시간지연 가중

문화는 거의 낙후된 상태이다.

영문과의 한 학생은 "학교에서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모이고 싶지만 스쿨버스 시간이 우선 걱정되고 학교 주변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고 밝힌다.

이상과 같은 캠퍼스타운이나

2년 잠실노선 좌석버스가 업무자들의 마찰로 인해 현재 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학교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스쿨버스는 시간이 원 칙적으로 감소되어야만 하며 이와 더불어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확대되어야만 한

지적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위치는 어느 정도 확보는 되었으나 대중교통수단과 학교 스쿨버스의 편안함이 차이가 나 오히려 사람들이 많더라도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훨씬 많은 상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의 유치와 스쿨버스의 배차시간 조정등 바로 눈 앞의 해결책은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갈까지의 전철유치만이 스쿨버스, 대중교통수단의 정체를 해결하고 살리는 유일한 대책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신갈전철유치는 작년부터 제기되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분당선 신도시가 완성되면서 들어서 는 전철을 신갈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다.

만일 신갈까지의 전철유치가 완성될 경우 서울에서 학교까지는 20분으로 단축되어지며 계속적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증가 되고 있는 상태에선 버스가 자동차의 교통불편한 해소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경기도

청의 자료제출 등 다각도로전철 유치를 위해 주력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대중적 호응이 있어야 좀 더 절실한 유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원캠퍼스개설시부터 문제되었던 교통문제는 학교측만의 노력뿐 아니라 학생들 또한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신갈전철유치를 위한 범정부적인 서명운동등 계속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캠퍼스 제반 문제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좀더 원활한 학교 등교길을 위해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지환 기자)

朔風

"총리의 무책임한 답변과 국민의 불신"

어느 회사의 연대장이 예비군 훈련 중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 사원에 게 물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 총체적 난국의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자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한바탕 웃었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전 TV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와 중진언론인들과의 토론 장면을 보았다. 보면서 느낀점은 행정부가 과연 민심을 파악해가며 행정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에만 입각하여 일처리를 하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시종일관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하는 모양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총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현시국에 관한 한 사과 한마디 정도는 정식으로 했어야 옳지 않은가.

토론을 벌이는 양자 모두는 학식과 권위를 모두 겸비한 사람들이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시국에 대한 견해 차이를 두게 하는 결과.

총리의 입장에서 볼때 누가 무어라 해도 임명권자 한사람만의 신용이 있는 자만심(?)을 지니고 강단에 서서 강의하던 경험과 실무로 바탕으로 소신있게 소임을 해나가는 것이 잘못이냐고 오히려 되묻는 것으로 보았다면 내가 잘 못 본것일까?

또한 언론인의 입장에서 볼때 연일 거듭되는 대규모 항의시위와 피부로 느끼는 현 상황이 위기라는데는 이전

이 없었기라고 믿었는데 이것조차 수긍하지 않는점이 내심 불쾌하여 상대방을 몰아 부치는 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현여당은 3당이 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부재의 행진을 언제까지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선 현시국의 수습방안에는 내각사퇴를 포함하여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야당 모든 정치인들은 뼈를 깎아 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민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말 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겠다.

진실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치를 하려 한다면 청렴한 공직자상을 보이기 위해 소유재산과 관계기관에 철저

히 신고토록하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존중할 만한 정책개발에 힘쓰며 수신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번 지자체 선거결과를 놓고 볼 때 여권이 많은 당선자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에게 압승을 거두었다고는 생가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때 이번에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상황이 그리 호전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든다. 생활전선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이 무시되어 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줄 안다. 결국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한 승승장구는 국민들이 줄이 들지 않을 것 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勤)

누군가 당신의 모교를 물어올 때 대학주보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이제 직장이나 집에서

대학주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진취적인 패기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과속의 여유를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思考와 理想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종합

학술· 시사 주간지입니다.

<대학주보 정기구독신청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신청전화: (02)961-0094

(02)963-5849

◇FAX: (02)963-5849

◇정기구독료: 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기 타: 정기구독 신청서는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고 가능한 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대 학 주 보 사